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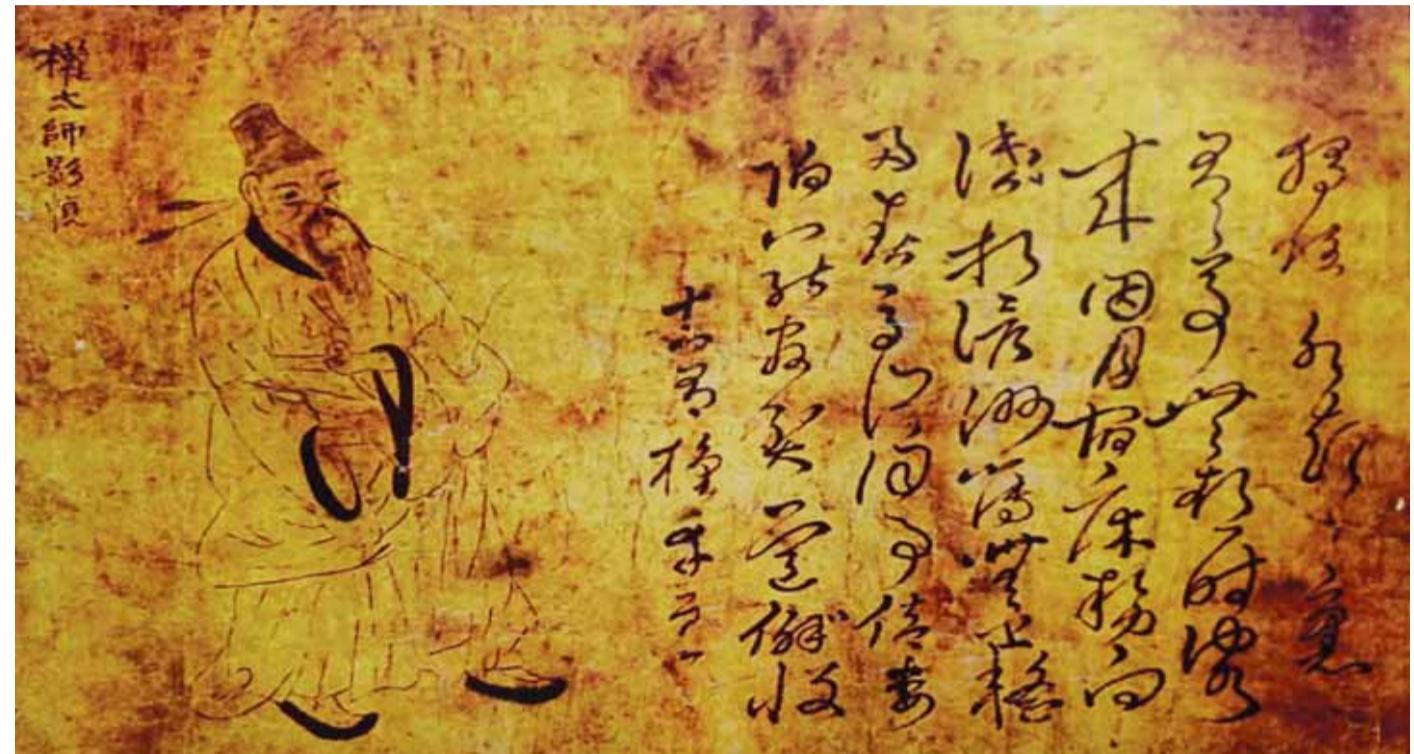
[월간] 2022年 10月 1日(토요일)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3年 第 568 號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은 추원보본의 역사적 과업

시조 태사공이 불던 신라 옥적(玉笛)을 찾자



신라방(新羅坊)에서 만들어진 한지 반절 크기(29.2x40.9cm)의 신라(新羅) 종이에 그려진 시조(始祖)의 영정(影幀)과 율시(律詩)가 있었다.

초국보급문화재이며 출현 자체가 한국의 회화사 및 서지 역사를 새로 쓸 귀중한 문화재지만 50여 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권오훈 종사편찬위원장(영가언행록 저자)이 1980년초 예전에 사는 종파의 여성 후손이 중앙종친(화수)회에 감정을 의뢰했을 때 찍은 사진이 유일하다.

이 영정의 성격을 보면 고려 왕족이나 그의 연희에서 화원이 태사공(太師公)의 전신을 먼저 그리고 여백에 “태사공영정 權太師影幀”을 썼다. 그런 다음 시조께서 직접 50자의 율시(律詩)를 고체(古體, 국조서)로 썼으며 글 말미에 “고창古昌 권행權幸”이란 위호를 남겼다. 걸림 없이 내려온 신필(神筆)이다. 태사공이 자신의 휘(諱)를 극조서로 남긴 안동권씨의 정신적 유산이며 국내에서도 몇 점 남지 않은 신라 종이에 영정이 그려지고 글씨가 써진 초국보급문화재에 해당된다.

또 영정(影幀)의 제작 기법 역시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방법이 아니며 관모(冠帽)나 복식도 고려인이 즐겨 입었던 팔소매가

길게 늘어트려진 웃이어서 시대상이 잘 묻어 난다. 고려초 서세(逝世) 전 제작된 시첩(詩帖)의 한 폭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보존되는 신라 종이 서지는 경주불국사석가탑(慶州佛國寺釋迦塔)에서 나온 다라니경(陀羅尼)경에 불과하며 율시(律詩), 영정(影幀)은 처음이다. 일본 정장원(正倉院)에 신라 종이에 써진 서지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시조 태사공(始祖 太師公) 영정은 1980년 초 예전에 주소를 둔 종파의 어느 여성 후손이 중앙종친회에 감정을 의뢰했을 당시부터 따라다닌 위작설이 종족을 감추게 한 간접 원인이 된 것 같다. 비록 사진으로 본 영정이지만 진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①영정 왼쪽 위쪽에 써진 표제는 화원이 정자로 썼기 때문에 정자체다. 시조의 휘(諱)자는 화원(畫員)이 쓴 정자체와는 달리 “고창古昌 권행權幸”위호는 시흥(詩興)에 젖어 자유스럽게 써 내려간 시조의 필체다.

시조가 불었던 신라 피리(玉笛)도 70년째 종적이 묘연하다. 신라인들은 신물(神物, 신령스럽고 귀한 물건)로 여긴 피리를 잘 불었다. 만파식적(萬波息笛)은 신라인들이 가장 아꼈던 나라 보물이자 그 영향을 받은 신라인들은 피리를 잘 불고 몸에 늘지녔다.

②50자 율시(律詩)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8분체로 볼 수 있어 시대가 맞다.

신라 왕손이었던 태사공이 가졌던 옥적(玉笛, 청죽이나 황죽으로 만든 대금형태의 악기)은 길이가 1척 9촌(60cm)이나 되고 소리가 맑고 청량해서 피리 소리가 나면 집안 노복은 물론 길가는 사람들이 피리 소리가 나는 누각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 신라 피리는 한국동란(韓國動亂)이 일어났던 1950년대까지도 능동(陵洞)묘소에서 봉행된 춘추제향(春秋祭享) 때마다 태사묘 보물각에서 가져다 불었다고 한다. 봄가를 제향(祭享)에 참석하면 능동재사(陵洞齋舍) 앞 누대에서 어느 선대가 불었던 피리 소리 추억담을 나이 드신 가령(家兄)들로부터 들었다.

이 피리는 6.25 동란 중 도난당했다. 시조 할아버지의 손택(手澤, 손때가 묻어서 생긴 윤기, 물건에 남는 옛사람의 흔적)이 서린 안동권문(安東權門) 최고의 유품이자 국보(國寶)급 문화재(文化財)이다. 이 옥적(玉笛)은 국내 어느 골동품(骨董品) 수집가의 손에서 사랑을 받고 있을 것이다.

신라 종이에 그려진 영정과 옥적(玉笛)은 어느 시기,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능동재사로 돌아오도록 100만 후손들이 유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조국보급 유물이 세상에 다시 출현 되면 상당한 보상을 하고서라도 되찾을 후손이 나올 것이다. 시조 영정과 신라 피리를 보는 즉시 문화재 당국에 신고해서 국가문화재로 영구보존이 되도록 후손이 들이 먼저 힘을 모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자료출처: 영가언행록永嘉言行錄〉

만파식적

신라의 전설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동해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기 위해 경주 양북 봉길리 앞바다에 묻힌 문무왕(文武王)은 해룡으로 변해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과 힘을 합쳐 용을 시켜 대나무를 왕에게 보내어 피리를 만들어 불게 했다.

이 피리를 부니 적병이 물러나고 병든 사람이 낫게 돼 신라가 평온해졌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라인들은 피리를 잘 불었고 몸에 지닌 신물(神物)이 됐다.

권오신 좌윤공파종회 회장

충재 권별 선생 닦실마을
입향 500주년 기념비 수립(豎立)



충재(沖齋) 권별(權撥, 1478~1548, 복야공파, 20세) 선생이 1520년 봉화 닦실마을로 입향한 지 500주년이 되었다.

유곡종중(종친회장 권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충재 권별 선생 입향 오백주년기념비’를 건립했다. 후손들은 창설재(蒼雪齋) 권두경

권행완 편집국장

9月 임원 회비 납부 내역

부회장

권오실(서울강동)	1,000,000
권태복 상임위원(서울금천)	1,000,000
권태균(서울구로)	1,000,000
권용기 상임위원(대전)	1,000,000

종무위원

권경일(서울강서)	200,000
권혁재(서울용산)	200,000
권춘탁(영주)	200,000

합계 : 4,6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종회

檢校公派 派祖 秋享祭 및 定期總會 案內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 파종회에서는 파조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壇前(단전)에서 개최합니다.

· 안 건

1. 임원 개선
2. 기타 현안문제 토의

● 추향제 일시 : 2022年 10月 11日(陰曆9月16日 中丁日) 화요일 오전 10시

● 추향제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351 파조단소(주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길 114-14)

● 회장 권무탁 010-3538-3515 총무부장 권영호 010-9355-2968

安東權氏檢校公派宗會 會長 權 武 倘